

##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세상의 시간과 구별하여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으신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이 곳 송실에 일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일정을 따라 한 주간을 다 보내기 전, 이 시간 수요예배를 드리오니,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 **임마누엘되시는 하나님**

이 세상사는 동안, 비록 우리 육체의 약함이 있어도, 절체절명인 홍해의 갈라짐이 없을지라도, 겸손히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더욱 Plug-in함으로써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거룩한 믿음 위에 주어진 삶을 잘 건축하여, 영생에 이르도록, 늘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길 이 시간 간구드립니다.

## **어느덧 저물어 가는 2018년, 나라 안팎의 다사다난함으로 기도의 제목이 많은 이때,**

경제적 번영과 민족 통일에 대한 간구 뿐 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종교적 순수성을 잃지 않는 우리 송실의 신앙 공동체가 더욱 견고해지길 원합니다. 송실의 구성원들이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돌보며 격려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이 시대의 희망이 되는 우리 송실 공동체가 되길 또한 간구드립니다.

##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맑은 영성을 갖춘 다음세대의 거목을 소망하며, 참된 씨앗을 뿌리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애쓰시는 총장님을 비롯한 송실의 모든 구성원들을 위로 하시고, 이전세대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귀한 능력을 주시길 원합니다.

## **우리가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지르게 하시는 주님**

불확실하고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오직 우리마음 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에서 나옴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결코 침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늘 기도로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실천하는 담대함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늘 가득하길 간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돕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여 전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어서, 생명의 말씀이 이 시간 선포될 때,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하며,

항상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18년 11월 28일 12시 수요예배)

주님의 평안으로 문안드립니다.

11월 28일 송실가족수요예배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함께 오셔서 복된 만남과 귀한 나눔의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1. 일시: 2018. 11. 28.(수) 12시
2. 장소: 한경직기념관 김덕운예배실
3. 성경말씀: 요한계시록 2:18-29
4. 제목: 불편한 진실
5. 설교: 박봉수 목사(상도중앙교회 담임)
6. 기도: 이진욱 교수(기계공학부)
7. 찬송가: 67장(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546장(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